

조경란 치매 서사에 나타난 이야기 정체성*

김 은 정**

차 례

- | | |
|------------------------------------|----------------------|
| 1. 들어가며 | 3. 돌봄 대상(치매 환자)의 이야기 |
| 2. 돌봄이(서술자)의 이야기 정체성 과 가족 이데올로기 | 정체성과 죽음의 존엄성 |
| 2.1. 『밤이 깊었네』 | 3.1. 『달걀』 |
| 2.2. 『내 사랑 클레멘타인』 | 3.2. 『달팽이에게』 |
| | 4. 나가며 |

국문초록

본고는 리피르의 이야기 정체성이라는 윤리적 논의를 바탕으로 조경란의 치매 서사 네 작품을 분석하였다. 이 작품들을 우선 ‘돌봄’을 기준으로 돌보는 이가 서사의 중심인 작품과 돌봄의 대상인 치매 환자가 서사의 중심인 작품으로 대별하고, 각 작품 모두 이야기 정체성 형성이 공통적인 주제 의식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내 사랑 클레멘타인』, 『밤이 깊었네』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여성 서술자(돌봄이)가 서사의 중심인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은 특히 조경란 소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A2A01926904).

** 경남대 국어교육과 교수.

설의 지속적인 화두였던 ‘가족 이데올로기’의 구조 속에서 ‘돌봄’의 의미가 고찰되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치매 환자나 증상보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서술자의 이야기가 중심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작품들은 가족 이데올로기의 직접적인 피영향자로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실한 돌봄이 서술자가 이야기 정체성 형성을 통해 자아를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서사로 해석될 수 있었다.

『달걀, 『달팽이에게』는 이야기 정체성 형성 과정의 중심이 치매 환자(돌봄 대상)인 작품들이다. 이 두 작품의 서술자는 남성 조카들로서 가족 이데올로기의 구조와는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적으며 돌봄 대상에 서사의 중심이 놓여 있다. 따라서 ‘돌봄’이 지닌 갈등적 의미가 달리 나타나기도 하여 특히 『달팽이에게』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의미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돌이면서 한 인물 같은 자매의 특성, 즉 돌봄이가 돌봄 대상의 이야기 정체성을 완벽하게 형성하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특히 두 작품 모두 치매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중시하는데, 한 인간의 이야기의 완성점이 죽음이라는 점에서 작품에 일관된 이야기 정체성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조경란의 치매 서사는 치매가 야기하는 갈등 구조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핵심으로서 이야기 정체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제어: 치매, 이야기 정체성, 돌봄, 가족 이데올로기, 죽음

1. 들어가며

조경란은 꾸준히 죽음, 노년, 질병의 문제를 독특한 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하여 작품을 발표해 온 작가이다. 그의 작품에서 특히 중심적 의미로 등장하는 노년 질병은 치매이다. 『나의 사랑 클레멘타인』(1997), 『밤

이 깊었네』(2008), 『달걀』(2005), 『달팽이에게』(2004) 등이 바로 그러한 작품이다.

또한 조경란의 작품 세계는 가족 이데올로기를 문제 의식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개인이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가족이라는 ‘부조리한 이데올로기’에 매몰된 인물들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천착하고자 한다. ‘치매’는 이 가족 이데올로기 형성의 주요 매개체가 되며 치매환자와 그를 돌보는 가족 간에 갈등과 대립의 세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갈등이나 대립은 인간의 삶에서 전형적인 문제로서 문학은 이와 관련하여 삶이 나아가야 할 가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경란의 치매 서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치매는 그 자체의 병리적인 의미보다는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이 ‘돌봄’¹⁾ 과정을 통해 야기되는 대립과 갈등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여 가치 있는 삶의 의미로 나아갈 수 있는지 탐구한다.

‘돌봄’은 질병, 특히 치매 서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인물들 간의 유대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환자와 돌보는 이 간의 갈등 관계를 야기하는 양면성을 지닌다. 따라서 기존 논의에서 가족들의 노인 부양 문제, 부양의 책임을 맡고 있는 며느리나 딸의 정서적, 심리적 부담감 등도 주로 논의되었다.²⁾ 지금까지 ‘돌봄’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어 온 작품들은 주로 여성 작가들의 작품이었다는 점도 중요한 한 특징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³⁾ 치매 환자의 ‘돌봄’ 문제는 단지 노년소설의 한 특징

1) 돌봄 경험이 형상화된 치매를 그린 소설은 앞으로 가속화 될 고령화 사회에서 돌봄 소설이라는 새로운 문학의 가능성을 시사한다.(엄미옥, 「고령화 사회의 문학- ‘치매’를 다룬 소설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4권 1호, 대중서사학회, 2018, 285-321쪽)

2) 김은정, 『현대소설에 나타난 ‘치매’의 의미』, 『한민족어문학』 제63집, 2013.

3) 생태여성주의 이론 중 특히 돌봄(caring)의 윤리는 고령사회에서 노년 죽음을 둘러싼 현실의 비정성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여성적 원리이다.(강혜경, 『여성주의 윤리시각에서 본 여성의 모성』, 『여성학논집』 25집 2호, 2008)라는 주장과 같이 ‘돌봄’의 문제는 여성생태주의의 한 양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나 치매라는 질병적 특징을 넘어서는 보편적 삶의 가치 찾기, 나아가 윤리적인 문제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

리콰르는 ‘누구에 대한 무엇을 설명하는가’에 따라 인물의 정체성 형성의 의미가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란 하나의 해석이며, 이러한 자기에 대한 해석이 보다 특권적인 매개를 갖게 되는 곳이 바로 이야기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 인간 존재의 정체성을 말할 때 일반적 기준의 구분으로 그를 개인화, 객체화하는 것이 아닌, 다른 누군가와 구분되는 존재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무엇’까지 포괄하는 범위에 있어야만 본질적인 물음에 다가갈 수 있다.

이야기는 삶의 총체적 연관성 속에서 통일성을 지니며, 사회 속에서 타자와 함께 타자를 위해서 어떻게 자신이 훌륭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 즉 훌륭한 삶이 무엇이며, 그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적 지향성을 지닌 각자의 ‘자기’를 보여 주는 것이다.⁴⁾ 리콰르는 또한 좋은 삶을 추구하려는 자기 존중의 능력이 타자를 매개로 하여 실현되는 배려의 윤리를 통해 인격의 존엄성을 논한다. 그에게서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배려는 도덕적 주체로서의 자체 목적을 지닌 인격체뿐만 아니라, 배아나 태아 그리고 무의식 환자나 식물인간 등 타자화된 인격체 등을 포괄한다.⁵⁾

이러한 리콰르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는 조경란의 치매 서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의 이야기 정체성(narrative identity)을 형성해 주는가의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이야기 정체성’이 인간 존재가 이야기 기능을 통해 획득하는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할 때,⁶⁾ 그 대상이 되는 ‘누

4) 윤성우, 『폴 리콰르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 2004, 200-205쪽.

5) 공병혜, 『리콰르의 이야기적 정체성과 생명윤리』, 『현상학과 현대철학』 24, 한국현상학회, 2005, 63쪽. 이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조경란 소설에 등장하는 ‘치매환자’ 역시 이 개념에 포괄될 수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6) 이야기 정체성(narrative identity)이란 “한 인간 존재가 이야기 기능의 매개 덕분에 얻게 되는 정체성”을 말한다. 이를테면 자서전의 경우, 탄생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간 구조상에서 이야기된 삶은 그 삶의 주체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이야

구'는 서사에서 핵심적 의미를 지닌다. 조경란의 치매 서사에서 이는 '돌봄'을 기준으로 치매 환자와 돌보는 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경우 돌보는 이는 특히 가족 이데올로기의 중심에 놓여 있다. 그 모순된 이데올로기를 인식하고 그것에 의해 고통받는 직접적인 피영향자이기 때문이다. 「내 사랑 클레멘타인」, 「밤이 깊었네」는 이 '돌봄이'들을 서술자로 하여⁷⁾ 이들을 이야기 정체성 형성의 주체로 설정하는 작품들이다. 이 두 작품은 특히 조경란 소설의 지속적인 화두였던 '가족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서술자인 돌보는 이에 초점을 두고 주제화하는 특징을 보여 준다.

서술자가 아니라 돌봄의 대상 즉 치매 환자에게 보다 초점을 두는 작품들로는 「달걀」, 「달팽이에게」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특히 「달걀」은 앞서 작품과 마찬가지로 가족 이데올로기의 양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갈등 요인은 아니다. 즉 이 작품에서 '돌봄'의 고통은 가족 관계라는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치매 환자에 대한 오해라는 심리적 문제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이야기 정체성 형성의 중심은 치매 환자인 이모의 삶에 놓여 있다. 「달팽이에게」 역시 이 점에서 동질하다.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문학의 관점에서 이 '타자화된 인격체'의 정체성은 중요한 과제이고, 그래서 이들 작품에서는 망각으로 인해 정체성이 훼손된 치매 환자의 자아 정체성⁸⁾을 서술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재구성하게 해

기가 그 화자 인물의 정체성을 생성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야기 정체성은 변화와 변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안정되고 틈이 없는 정체성'이 아니라 이야기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되고 해체되는'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기언, 「『이인』의 이야기 정체성」, 『불어불문학연구』 98집, 한국불어불문학회, 2014, 148-149쪽.)

7) 일본의 노년문학의 경우, 돌봄 노동의 의미를 강조하여 개호(介護)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치매를 주제로 한 작품들을 주로 다루며, '개호문학'이라는 장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안지나, 「1970년대 한일노년문학의 '치매' 표상과 젠더」, 『횡단인문학』 제3호, 2019, 65쪽) 이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라는 인상이 강하여 본고에서는 '개호자', '개호 대상'이라는 용어 대신 '돌봄' 행위를 중심으로 '돌봄이', '돌봄 대상'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주는가 하는 윤리적인 문제가 죽음과의 관련성 속에서 탐색된다.

이 작품들은 이와 같이 이야기 정체성 형성 대상에 따라 분화되지만 이야기 정체성을 통한 삶의 의미 찾기라는 주제적 의식에서는 하나로 통합된다. 각 장에서는 이와 같은 작품의 양상을 개별화하여 고찰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하여 조정란 치매 서사의 기본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2. 돌봄이(서술자)의 이야기 정체성과 가족 이데올로기

조정란의 가족 이야기는 답답하게 봉쇄된 가족 공간에서 끊임없이 탈출을 꿈꾸지만 결국 그 가족에 얽매어 다시 회귀할 수밖에 없는 인물들의 지루하고 끈질긴 잠행과 견딤에 의해 진행된다. 이 지루하고 끈질긴 잠행의 기록을 통해 좀처럼 변화하기 힘든 견고한 가족 이데올로기의 구조를 드러낸다.⁹⁾

8) 리콰르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두 종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동일 정체성(동일성, identity)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정체성(자기성, selfhood)이다. 동일 정체성이란 시간의 흐름에도 변하지 않는 시간 속의 영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생물학적 개체의 유전자 코드”와 “하나의 개인을 동일자로 재동일화하게 해 주는 개별적 표시들의 전체인 성격”을 말한다. 자기 정체성(자기성)은 성격의 지속성이 아닌 다른 양식의 지속성을 말한다. 특히 자기성의 구체적 양태로 스스로 어떠한 태도로 살겠다는 “약속의 준수” 등을 내세우는데, 이와 같이 자기성이란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개별자의 그다움을 말한다.(폴 리콰르, 김웅권 역, 『타자로서 자기자신』, 동문선, 2006, 160-164쪽 참조) 본고에서 의미화하는 정체성은 ‘자기 정체성’의 개념에 가깝지만, 논의의 특성상 그 엄밀한 구분이 특별히 필요한 것은 아니며 보편적인 용어로 ‘자아 정체성’, 혹은 간단히 ‘정체성’과 같이 표현하기로 한다. 본고의 리콰르의 이론에 대한 논의는 이 책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다.

9) 서영인, 「유폐된 내면의 행로 -조정란론」, 『창작과 비평』 31, 2003, 318쪽. ‘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익명의 심사위원은 2장의 작품들이 가족 이데올로기로 묶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지만 치매 환자를 둘러싼 가족 구성원의 고통이나 갈등이 서사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그 개연성을 부인

『밤이 깊었네』, 『내 사랑 클레멘타인』에서 가족 억압의 원인이 되는 것은 ‘치매’라는 질병이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치매’로 인한 가족 위기 등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라 치매 환자(『밤이 깊었네』의 어머니, 『내 사랑 클레멘타인』의 아버지)를 돌보는 서술자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는가에 초점이 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극복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질 부분이 바로 ‘나는 무엇인가’라는 자아 정체성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되는 양상이다. 즉 독립된 주체로서의 가치를 찾는 과정이 가족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는 열쇠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리콥르의 ‘나는 무엇인가’의 주체인 ‘나’는 이 두 작품에서 치매 환자가 아니라 그에 대해 말하는 서술자 ‘나’이다. 이 서술자는 두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치매 환자의 딸이자 돌봄이로서, 방식 면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작품들이다.¹⁰⁾

2.1. 『밤이 깊었네』

먼저 『밤이 깊었네』의 경우 치매와 파킨슨 병을 동시에 앓고 있는 어머니의 부양 문제¹¹⁾가 가족 이데올로기의 요인이 된다. 가족 관계 속에서 병든 어머니를 돌볼 사람은 오로지 서술자 ‘나’뿐이며, ‘나’는 이런 가족의 상황을 피할 수 없는 운명 정도로 인식한다.

가족이라고는 내가 낮과 밤을 구분하던 시절부터 엄마와 나, 이렇게

하기 어렵다고 본다.

10) 이 점 역시 뒤에 다루게 될 『달걀』, 『달팽이에게』와는 구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1) 치매는 불행한 노년 삶의 단면들로 제공되고, 치매의 다양한 증상을 감당해야 하는 가족들에게 좌절과 고통이 되며 갈등과 절망 등 시련의 상징으로 제공되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결국 치매 모티프 소설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가족들의 노인 부양문제라 할 수 있다.(김은정, 『현대소설에 나타난 ‘치매’의 의미』, 『한민족어문학』 제63집, 318쪽.)

둘뿐이었다. 그날 이후 병원 갈 때를 제외하고는 버스를 타고 열한 정거장 이상 가본 적이 거의 없다. 열한 정거장. 그건 엄마가 잠든 사이 내가 왕복으로 걸어갔다 걸어올 수 있는 거리였다. 엄마가 누워 있는 옆방에서 종이접기를 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말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앞에 둔 것처럼 상상하면서 말들, 그들의 대화를 끼적거리고는 했다. (155-6쪽)¹²⁾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는 젊은 여성인 ‘나’는 오랜 시간동안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아간다. 그러므로 ‘나’의 자아 정체성은 돌봄 행위 자체만이 내면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어머니의 병수발을 체념적 태도로 합리화하며 수용한다.¹³⁾ 그러다보니 ‘나’의 정서와 일상적 삶을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돌보는 행위로만 고착시키고 있다. 고립감과 ‘체념’의 정서를 ‘나’는 ‘나’의 자아 정체성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와 B의 관계, 그것은 즐거움이나 흥분, 더욱이 열망 같은 것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나는 의도적으로 B를 체념했다. 기대도 없었고 바라는 것도 없었다. (중략) B와 헤어지고 난 뒤, 어쩌면 그가 사랑했던 것은 그런 나의 체념의 태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씩씩한 깨달음이 든 건 사실이다. (162쪽)

이것은 연인인 B와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나’의 정체성이 된다. ‘나’는 어머니를 돌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를 위한 시간은 점차 줄어들고, “집에만 너무 오래 있어서 퇴행하고 있다는 느낌”과 “어떤 웅

12) 조경란, 『밤이 깊었네』, 『풍선을 샀어』, 문학과 지성사, 2008. 이하 이 작품의 인용은 이 책으로 하고, 인용 페이지만 명시한다.

13) 박선애·김정석, 『문학 텍스트 속의 노년 죽음과 돌봄: 조경란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6, 2016, 794쪽. 이 논문은 조경란의 치매 서사를 돌봄의 의미를 중심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돌봄’의 의미를 돌봄이의 현실 상황과 감정을 중심으로만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본고의 ‘이야기 정체성’을 통한 논의는 돌봄이와 돌봄 대상을 같이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본다.

대한 열망도 기대도 없는 사람”으로 고착되어 간다. 이보다 더욱 부정적인 것은 어머니를 돌보면서 자신이 어머니처럼 될까 봐 두려움까지 느끼게 된다는 점이다.

어머니의 치매 증상은 ‘운동 장애’부터 시작되는 파킨슨병의 주요 증상¹⁴⁾으로만 표출되어 있다. 이것은 기존의 치매를 모티프로 한 여타의 작품들이 ‘기억’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었던 것과는 구별되는 것이며, 『밤이 깊었네』의 이야기 정체성 문제가 기억의 복원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

더 좋지 않은 건 이제 파킨슨병과 치매를 동시에 앓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언젠가 젊은 날의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면서 걸게 될까 봐 두렵다. 얼굴 표정이 딱딱해지고 잠꼬대를 심하게 하면서 헛손질을 하게 될까 봐. 걸을수록 속도가 빨라져 앞으로 고꾸라질까 봐, 그래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까 봐. (157쪽)

돌봄의 대상은 물화된 대상으로 멈추어 있고, 그와 연계된 돌봄이도 반복적인 시간 속에 정체되어 있다. 이 가족 이데올로기의 틀 안에서 ‘나’의 정체성은 위축되고 폐쇄된다. 그렇게 어머니를 돌보는 존재로만 고착되어 있던 ‘나’의 정체성에 변화가 시작된 것은 ‘글쓰기’ 행위를 통해서이다. ‘나’는 “어머니가 누워 있는 안방에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앞에 둔 것처럼 상상하면서 말들, 그들의 대화를 끼적거리는” 일을 했고, 대화로 이루어진 문학 장르인 희곡의 작가로 등단하게 된다. 이 ‘글쓰기’ 행위는 그 언어적 의미처럼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는 곧 이야기 정체성 형성에 직결되는 표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14) “실제로 내 엄마가 앓고 있는 것 정확하게 치매는 아니다. 의사는 그게 파킨슨병이라고 했다. 아마 나는 치매와 파킨슨병이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물었을 것이다. 치매는 기억력 장애나 인지장애를 겪게 되지만 파킨슨병은 운동 장애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기억을 잃는 게 아니라 몸이 굳어가는 증상부터 나타난다.” (『밤이 깊었네』, 155쪽)

“치매에 걸린 엄마와 스무 살 때부터 그 엄마를 간호해온 서른 중반의 딸. 그 모녀의 일상을 그린 이야기”인 ‘나’의 등단작 『엄마와 삶의 의미』는 서술자 ‘나’가 어머니의 돌봄 행위를 그대로 표출한 것으로 쉽게 유추된다. 즉 돌봄 행위를 하는 자신의 ‘현실’의 역할을 ‘글’로 옮겼다는 의미이다.¹⁵⁾ 그런 점에서 ‘나’의 등단은 ‘어머니를 돌보는 존재’에서 ‘글을 쓰는 존재’로 ‘나’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나’가 자신의 이야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이동하였음은 분명하다.

‘나’의 등단이 계기가 되어 연인 관계가 된 B는 ‘나’의 자아 정체성을 구성해 주는 측면에서 어머니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낮과 밤을 구분 하던 시절부터 단 둘뿐’인 어머니는 나에게 쓰는 것과 읽는 것을 ‘가르쳐 준’ 사람이다. B 역시 ‘나’에게 ‘나의 조언자였고 훌륭한 책’이었으며,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어 한 게 많은’ 사람이었다. 즉, 어머니를 돌보며, B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배우는 존재’로서 고착된다고 볼 수 있다.

B와 ‘나’의 이별은 바로 이러한 ‘나’의 정체성의 변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날 따라 간 B의 친구 집에서 스나이퍼건을 표적에 쏘는 게임에 ‘나’도 참가하게 된다. ‘나’는 처음 보는 스나이퍼건의 매력에 빠지게 되고, ‘담배에 붙은 불’을 표적으로 맞추는 게임에서 참가자 중 유일하게 성공하게 된다.

불꽃은 허공에서 멈칫하며 미세한 불꽃을 튕겨내더니 현관 바닥으로 부서지듯 천천히 떨어져 내렸다. 호뭇한 얼굴로 Y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더 어려운 표적도 맞힐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바닥에서 일어나 상기된 얼굴로 B를 쳐다보았다. 난 미소를 멈추고 말았다. 그런 눈.

15) “그러다가 평생 어머니 얘기만 쓰게 될 거라”는 B의 지적도 결국 ‘글을 쓰는 나’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하고 ‘돌봄 행위’만을 옮기는 것에 대한 지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처음 보는 눈. 적의를 담은 눈. 싸늘하고 냉혹한 B의 눈빛. B는 그런 시선으로 나를 일별했다. (170쪽)

나와 B의 이별의 계기가 되는 이 장면을 “나’의 내면에 삶에 대한 욕망과 열망이 있음을 발견하고 자연스럽게 이별에 이르는”¹⁶⁾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나의 정체성의 변화를 B가 깨닫게 된 것이 보다 본질적인 요인이었다고 할 것이다. B가 이끌어주지 않은 세계로 가 있는 ‘나’, B도 하지 못한 것을 성취한 ‘나’, 이것은 지금까지 B가 이끌어주는 대로 수동적으로 끌려가던 ‘나’의 역할에 변화가 생긴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나’의 역할 변화에 따른 정체성의 변화를 B도 ‘나’도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 이별로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B의 죽음은 다시 한번 ‘나’의 역할 변화의 계기가 된다. B를 통해 수동적 역할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한 ‘나’는 B의 죽음을 통해 치매 어머니를 돌보는 존재로만 자신을 한정시켰던 고정된 ‘딸’의 역할에서 벗어날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자장가를 불렀다. 잘 자라 우리 엄마, 앞뜰과 뒷동산에. 잘 갔다 오라는 인사도 없이 엄마는 눈을 감았다. 이불을 끌어다 어깨를 덮어주었다. 엄마는 너무 늙고 너무 작아 보인다. 그러나 나에게 쓰는 것과 읽는 것을 가르쳐준 사람. 크고 작은 슬픈 것들, 암담한 것, 불안한 기대들, 이런 것들을 주었던 사람이다. B처럼. 그런 게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나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 같다.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조금 미뤄도 될 것 같다. 다시 돌아올 테니까. 엄마를 돌보듯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이 필요하다. (174쪽)

‘엄마를 돌보는 삶’에서 벗어나 ‘나’를 돌보는 삶으로의 ‘나’의 정체성의 변화는 딸의 ‘역할’만을 생각한 관계적 존재로의 ‘나’에서 ‘나’의 이야기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단독자로서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16) 박선애·김정석, 앞의 논문, 794쪽.

렇게 형성된 ‘나’의 정체성은 단순히 ‘돌봄’ 행위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글을 쓰는 나’로의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의 죽음은 나에게 머뭇거리다 포기하게 한 것들을 떠올리게 했다. 어떤 사람은 아내가 되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되고 배우가 되고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글을 쓰기도 한다. 중요한 일을 겪고 났을 때 사람들은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어쩌면 나의 체념은 그를 잃음으로써 완성된 것인지도 모른다. 새 희곡을 한 편 쓰기로 했다. (176 쪽)

『밤이 깊었네』의 결말을 ‘자유로운 단독자적 주체로서의 글 쓰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차혜영의 지적대로 ‘나’의 이러한 변화는 ‘나’의 자아 정체성 속에서 성장하는 내면의 세계를 확인하는 것이며, 자폐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로 열리고 타인들과 어울리는 건강함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¹⁷⁾ 그러므로 치매 어머니와 결별은 ‘가족 유기’의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열어가는 새로운 관계의 변화이자, 동시에 삶 자체가 불완전해도 그것을 끌어안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을 수 있다.

2.2. 『내 사랑 클레멘타인』

『내 사랑 클레멘타인』은 조경란의 초기 작품들¹⁸⁾에서 주로 나타나는 가족 관계의 구도를 그대로 보여 준다.¹⁹⁾ 즉 가족이란 ‘개인에 앞서 개인의 존재 조건을 규정하는 선택 불가능한 선험적 관계의 망’이며, ‘부조

17) 차혜영, 『가족과 작별하기, 타인과 함께서기 - 조경란 소설집 『풍선을 샀어』』, 『본질과 현상』 14, 2008, 290쪽.

18) 『움직임』(1998), 『가족의 기원』(1999) 등의 작품이 있다.

19) ‘가족은 화해하거나, 소통할 수 없는, 내내 불편하게 시선을 피하면서 어쩔 수 없이 동거해야 하는 불가피한 삶의 조건’으로 파악된다. (서영인, 앞의 논문, 316 쪽)

리한 이데올로기'이며 '가족에 포박된 자의 무력감과 숙명적 우울'²⁰⁾이 조경란의 가족 소설의 기본 구조라고 했을 때, 『내 사랑 클레멘타인』은 그 모든 특징을 그대로 보여 준다. 이정석의 지적대로 언급하자면, 『내 사랑 클레멘타인』에서 가족을 포박하고 있는 불가항력적인 재난과 같은 상황은 아버지의 '치매'이다.

그 속도는 아마도 죽어가는 뇌세포의 크기와 맞먹을지도 모른다. 저러다가 아예 다시 태어만한 크기가 돼서 죽어버리는 건 아닐까. 그녀는 가끔 웅크리고 잠든 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한다. 그러나 신장이 줄어들다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사실은 아버지는 그 병을 통해 인간이 가진 존엄성을 상실했다는 것일 터이다. 어찌면 아버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닐지도 모른다. 가족 말고는 그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러나 가족도 인내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지금 우리에게 아직 인내심이 남아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어머니? 해연이? 아니면 나?... 그녀는 고개를 젓는다. 오년이란 세월은 짧지 않다.
(16쪽)

이 작품에서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실제로 간병하는 사람은 '어머니'²¹⁾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물리적인 간병 행위 외에 모든 정신적, 물질적 '돌봄'을 큰딸인 '그녀'(서술자)에게 의지한다. 여동생, 남동생 모두 현실을 외면하는 상황은 이 작품 『내 사랑 클레멘타인』 역시 치매 노인의 부양 문제가 돌보는 이들의 고통 및 일상적 삶의 파괴, 더 나아가 가족 해체의 위기까지 그려내는 전형적인 치매 서사의 특징을 보인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 역시 서술자 '나'의 정체성 형성에 본질적인 주제 의식을 두고 있다.²²⁾

20) 이정석, 『우울, 불가능한 재현을 꿈꾸는 그 어두운 징조』, 『작가세계』 20, 2008, 85쪽.

21) 실제적인 간병자인 어머니 역시 '다리를 절며 나날이 살이 찌고' 있는 무기력한 모습과 관절염을 앓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서술자인 딸은 어머니에 대한 '돌봄' 의무까지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의 치매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감내하는 대상인 서술자 큰딸은 결혼 상대자로부터 일방적 이별 통보를 받고서도 분노감 조차 표현하지 못한 채 아픈 아버지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생계형 피아노 교습을 반복한다. 그러다 보니 그의 일상은 하루하루 세상과 단절된 채 유폐적 삶을 되풀이한다. 그녀에서 독립적 주체로서의 존재 의미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고 병들어 죽어가는 아버지를 돌보는 ‘큰딸’이라는 관계적 존재만이 드러난다.²³⁾ 특히 이러한 ‘그녀’의 돌봄 행위는 ‘딸이’의 당연한 책무로 여기는 유교적 질서, 즉 또 다른 유형의 가족 이데올로기에 의해 강요되면서 심리적, 육체적 피로와 버거움이 그녀(서술자)의 일상에 그대로 표출된다.²⁴⁾

기껏 집을 떠나는 게 너의 꿈이었니. 여자는 자문을 하듯 읊조리며 거울 속의 여자에게 묻는다. 여자는 말이 없다. 어디론가 멀리, 나를 좀 데려다줘.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거울 속의 여자에게 애원한다. 죽을 때까지 껴안고 가야 할 비밀을 누설한 사람처럼 그녀는 순간적으로 입을 틀어막는다. 지금껏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해보지 않은 말이다. 낙서로라도 그런 문장은 써본 기억이 없다. (51쪽)

관계적 존재로만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던 ‘그녀’가 자신이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인지하게 된 후, 선택하고자 한 방법은 아버지

22) 익명의 심사위원은 이야기 정체성이 ‘한 인간 존재가 이야기 기능의 매개 덕분에 얻게 되는 정체성’이라는 이론적 전제에서 온전히 해석 가능한 텍스트는 서술자인 주인공이 돌봄과 글쓰기를 매개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축해 가는 『밤이 깊었네』에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야기 정체성은 그것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 국한되기보다는 한 주체가 내재하고 있는 이야기를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즉 치매 환자까지도 그에게 내재된 이야기를 통해서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 사랑 클레멘타인』을 비롯하여 이후 3장의 두 작품들도 이야기 정체성 이론을 통해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23) 박선애·김정석, 앞의 논문, 791쪽.

24) 위의 논문, 790쪽.

에 대한 부담감을 없애려는 것이었다. “목을 매거나 동맥을 자르는 법, 가스를 틀어놓는 법, 옥상에서 떨어지는 법, 방법은 많다. 아버지에게 그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시작으로 ‘그녀’는 가장 극단적인 선택인 ‘아버지 유기’를 계획한다. 치매 상태의 아버지가 지속적으로 갈망하는 고향행 열차에 아버지를 태워 보냄으로써 아버지를 유기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녀는 그 계획을 완전히 실행하지는 못한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다. 장식장 뒷면 흠에서 떨어진 것은 벽돌처럼 생긴 회색빛 돌이다. 이게 뭘까. 그녀는 허리를 굽혀 그것을 집어든다. 문패다. 張基哲.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문패. 그녀는 손목이 시큰해지는 것도 아랑곳 않고 문패를 들고 서 있다. 이상한 일이다. 왜 이 문패가 이곳에 놓여 있었을까. (33쪽)

우연히 발견하게 된 아버지의 ‘문패’를 통해 서술자 ‘그녀’는 치매 아버지의 지난 삶을 깊이 이해하게 된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문패를 들고 한참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아버지를 본” 생각이 났기 때문이다. ‘수위’일을 하며 모은 돈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완성한 집에 문패를 달아야 하는 순간. 갖가지 회한을 느꼈을 아버지의 인간적인 모습을 그녀는 기억한 것이다. 그리고 그 문패를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발견한 것 역시 치매로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아버지가 어느 한 순간은 그때의 그 인간적 회한의 모습을 지닌 아버지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때문이다.

리콰르는 현재 그 환자의 자기성을 그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상태일 때, 타자와 함께한 자기의 삶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누구’임을 추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환자에 대한 자기성은 바로 그와 삶을 함께한 가족이나 친구 등에 의해 구성된 이야기를 통해서 확보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환자와 삶의 역사를 함께 엮어가고 이야기의 공동의 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환자의

삶의 이야기를 엮을 수 있다는 것이다.²⁵⁾ 아버지의 ‘문패’를 통해 아버지의 인간적 회한을 발견한 서술자 ‘그녀’는 아버지의 이야기 정체성을 엮어주는 공동의 저자가 되기로 했다고 볼 수 있다.

텔레비전을 켜둔 채로 아버지는 깊이 잠들어 있다. 그녀는 텔레비전을 끄고 이불을 덮어준다. 아버지는 신음소리를 내며 돌아눕는다. 돌아누워도 여전히 둥글게 몸을 만 채다. 자궁 속에 웅크리고 있는 태아 같다. 흘러내린 이불을 가슴까지 올려 꼭꼭 여며준다. 선풍기 타이머를 삼십 분으로 맞춰 놓는다. 아버지의 머리맡에는 가방이 놓여 있다. 그녀는 방을 나가려다 말고 가방을 집어 든다. (71쪽)

‘수위 시절에 쓰던 낡은 수첩이나, 육십칠 년에 찍은 결혼 사진, 그리고 꾸덕꾸덕 마른 생선들이’ 들어 있는 아버지의 가방은 아버지 삶의 이야기를 엮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제공해 준다. 즉 치매의 아버지가 닿고자 하는 시간과 장소는 ‘넓고 넓은 바닷가 마을, 하루 종일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고 끈끈한 바닷바람이 불어내는 곳’에서 당신의 생신날 북어국을 먹고 자살한 사십구 년 전의 어머니를 만나는 그 ‘시간’이며, 그 시간과 장소가 아버지의 생에서는 돌아가고 싶은 절대적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張基哲.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문패다. 우산이 확 뒤집어진다. 그녀는 열걸에 몇 발자국 뒤로 밀러난다. 바람이 불고 있다. 눈을 뜰 수가 없을 만큼 세차게 비가 쏟아진다. 그녀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고 주춤주춤 대문 옆으로 다가간다. 녹슨 못에 문패를 매단다. 어디선가 또 천둥소리가 들린다. 그녀는 고개를 높이 들어올린다. 식칼로 내려친 듯 선명한 금 하나가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다. (73쪽)

25) 공병혜, 『리코르의 이야기적 정체성과 생명윤리』, 『현상학과 현대철학』 24, 2005, 79쪽.

아버지가 달지 못했던 ‘문패’를 서술자 ‘그녀’가 다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내 사랑 클레멘타인』은 치매 아버지의 이야기 정체성을 형성해 주는 공동 저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서술자 ‘그녀’ 자신의 이야기 정체성도 형성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즉 그녀는 죽어가는 아버지의 지나온 삶을 깊이 이해하고, 그 동안 품어 왔던 분노와 좌절감보다는 연민과 사랑의 감정을 갖고 아버지를 보살피는 행위의 주체자로서 성장하게 된 것이다.²⁶⁾ 이것은 결국 병들어 죽어가는 아버지를 돌보는 상황을 견뎌기만 하는 ‘큰딸’이라는 관계적 존재에서 치매로 자기를 표출할 수 없는 타자화된 인격체도 존중과 배려의 대상임을 깨닫는 윤리적 존재로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조경란의 두 작품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여성 서술자의 자아 정체성 형성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돌봄’은 그 대상자에 초점을 둔다면, “인간 이해의 방식으로서 인격의 정체성과 그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는 돌봄의 태도로서 전제되어야 하는 철학적 기초”이며 “치매와 같은 정신적 장애를 지닌 대상자를 돌봄에 있어서 자기로서의 인격의 정체성을 어떻게 존중해 주고 배려해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돌봄의 실천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²⁷⁾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돌봄은 ‘숭고한’ 행위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이는 그 돌봄의 주체를 배제하는 일면적이며 왜곡된 시각을 형성할 수 있다. 돌봄이에 초점을 둔다면 ‘돌봄’은 그 대상자와의 관계 속에 돌봄이를 편입시키는 폐쇄성을 낳고, 그 경우 돌봄이는 ‘희생적’ 존재로 머물게 된다. 유교문화적 맥락, 가족 이데올로기 속에서 ‘돌봄’은 양자 간의 갈등을 형성하는 요인일 뿐이다. 두 작품에서 특히 ‘여성’ 서술자를 내세운 것은 이러한 배경적 의미로서 해석할 수 있다.

26) 박선애·김정석, 앞의 논문, 793쪽.

27) 공병혜, 『간호에서의 보살핌에 대한 철학적 탐구 - 리퀴르의 이야기 윤리에 기초하여』, 『대한간호학회지』 제35권 제7호, 2005, 1333쪽.

이야기 정체성 형성은 이 모순된 질서에서 벗어나는 해결책이다. 여성 서술자가 유교적 질서에서 성 역할 규범의 내면화로만 작동하던 것에서 벗어나 서술자(도우미)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주체로 나아감으로써 인간으로서 주체성,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다. 두 작품은 모두 이 점을 보여 주는데, 특히 『내 사랑 클레멘타인』은 타자인 아버지의 이야기 정체성 형성을 거쳐 서술자 자신의 정체성 형성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처럼 한 사람의 삶에 ‘무엇’이 있는지 찾아내고 엮는 이야기 정체성 형성이 전제될 때, 인격의 존엄성은 ‘배어나 태아 그리고 무의식 환자나 식물인간 등 타자화된 인격체’에까지 미칠 수 있게 된다.

3. 돌봄 대상(치매 환자)의 이야기 정체성과 죽음의 존엄성²⁸⁾

조경란 치매 서사의 두 번째 유형은 이야기 정체성 형성의 중심이 치매 환자(돌봄 대상)에게 가 있는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의 서술자는 남

28) 한 익명의 심사위원은 돌봄 대상(치매 환자)의 정체성 형성과 관련된 것으로 범주화한 3장의 경우에도 돌봄이의 정체성 형성 양상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타당한 범주화인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2장과 3장은 돌봄 대상(치매 환자)의 정체성 형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즉 2장과 달리 3장은 돌봄 대상의 정체성 형성이 나타나는 작품들이다. 물론 부차적으로 돌봄이의 정체성까지 이어지기도 하지만 우선적으로 돌봄 대상의 이야기 정체성 형성이 핵심적인 특성이라는 점에 범주화의 중점을 두었다. 익명의 또 다른 심사위원은 정체성 형성이 상호작용이라는 점에서 돌봄이(2장)와 돌봄 대상(3장)으로 분리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체성 형성이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해도 작품은 특정 인물의 이야기에 초점을 두어 서사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그 초점 인물에 따라 분류화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나아가 해당 심사위원은 ‘서술자-치매 환자’의 용어의 불균형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다만 용어의 체계만을 고려할 때 ‘서술자-서술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논의의 특성상 서술 대상의 구체적 의미를 부각하는 의미에서 ‘치매 환자’라고 표현하였다.

성 조카들이며, 이들은 앞서의 유형과는 달리 직접 치매 환자를 간병하지는 않는다. 특히 이들 작품에서는 죽음의 존엄성에 대한 고찰이 진지하게 이루어지는데, 『달걀』(2005)과 『달팽이에게』(2004) 이 두 작품 모두 이모와 고모의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공통점이 있다.

『달걀』, 『달팽이에게』의 또 다른 공통점은 지금까지 조경란 소설에서의 오랜 갈등의 구조였던 가족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순화된 방식으로 제시된다는 것이다. 두 작품에는 부모와 자식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유대가 끊어지고 이모, 고모로부터 극진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 주인공(서술자)이 등장한다. 진짜 가족이 아닌 유사 가족 또는 광범위한 가족으로 구성된 이 가족 관계의 성격은 폭력이나 상처가 아니라 보살핌, 희생, 헌신,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²⁹⁾

이 두 작품은 앞서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치매’가 관계의 단절, 폐쇄의 위기를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 다만 이 작품들은 돌봄의 대상, 즉 치매 환자의 이야기 정체성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무게중심의 이동이 아니라, 그 환자가 가까이 가 있는 세계 즉 죽음이라는 또 다른 주제를 다루게 되는 연결고리가 된다. 죽음의 주제와 연결되면서 치매 환자의 이야기 정체성을 형성하고,³⁰⁾ 이로써 서술자의 이야기 정체성 형성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보인다.

29) 차혜영, 앞의 논문, 287쪽.

30) 익명의 심사위원은 치매 환자의 실재는 소외되어 있거나 알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치매 환자의 이야기 정체성 형성 논의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치매 화자가 대상화된 존재라고 하여 그의 정체성에 대한 접근이 본질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치매를 다루는 많은 작품들은 치매 환자의 무의식에 접근하는 다양한 시도를 보이고 있다. 돌봄이의 눈을 통해서 치매 환자의 이야기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도 작품이 보이고자 하는 주제 의식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3.1. 「달걀」

조경란의 「달걀」은 스물일곱 살부터 ‘나’를 돌봐온 이모의 ‘치매’가 중심이 된 이야기다. 내가 두 돌밖에 되지 않았을 때, 부모님이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국가대표 탁구 선수였던 이모는 조기 은퇴를 하고 나를 키우게 된다. 한순간에 세상에 남겨진 이모와 나 단 둘. 이모는 새벽에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떼다가 파는 일을 하며 나를 키운다. 이런 이모는 새로 이사 간 집의 대문³¹⁾을 누가 뜯어가 버린 황당한 도난 사건 이후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자꾸만 망각하려고 하는 건 이모 자신의 의지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이모는 이제 겨우 예순 살이 약간 넘었을 뿐이었다. 대문을 도둑맞은 집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병 따위를 앓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분노로 머리가 터져 나갈 것만 같았다. 이모의 의지는 물속에 검은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서서히, 그러나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이모 우리 집 주소가 뭐지? 전화번호는? 이모 나이는? 내가 태어난 해가 언제지? (중략) 퍼붓듯 쏟아대는 내 질문에 간신히 꾸물꾸물 대꾸할 때마다 축축하고 비리고 역한 냄새가 폐로부터 깊숙이 이모의 입속에서 풍겨나고 있었다. 치매의 냄새였다. 손쓸 새도 없이 이모는 수정이 불가능한 삶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름도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게 된 것이다. (270-1쪽)³²⁾

기억을 잃어 가는 이모의 증세에 따라 나는 어릴 때 이모가 부르던 대로 ‘이쁜 우리 장군이’ 역할을 하며 이모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음을

31) 조경란 소설의 상징적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 ‘문’은 “그 문은 언제나 두 개의 면을 갖고 있으며 밖을 차단하지만, 열린 통로처럼 내부와 외부를 연결시켜주기도 한다. (『밤이 깊었네』)”의 상징성과 같이 현재와 과거의 기억을 차단, 연결해주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대문’을 도둑 맞은 후의 ‘치매’ 증상의 발현은 뛰어난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32) 조경란, 「달걀」, 『풍선을 샀어』, 문학과 지성사, 2008. 이하 이 작품의 인용은 이 책으로 하고, 인용 페이지만 명시한다.

느낀다. 하지만 ‘나’는 이런 이모를 돌보는 대신 집을 자주 비운다.³³⁾ 밥 먹는 것도 대변을 가리는 것도 불가능한 이모를 집에 두고 집을 비우는 나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은 ‘부채감’이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던 건 정작 이모의 죽음이 아니라 죽기 전에 이모가 나에게 보여줄 태도, 혹은 나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위협적인 비난의 말 같은 것은 아니었을까. 나는 평생 이모에게 갚을 수 없는 부채감으로 짓눌려왔고 그것은 때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가피한 원망으로까지 이어지곤 했다. (중략) 이모가 나를 키워준 순간부터, 우리가 함께 살았던 그 모든 시간 또는 나는 내내 이모의 인생을 망쳐버렸다는 죄책감과 그 죄책감에서 비롯된 의무감과 두려움으로 평생 짓눌려 있었다는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 그것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할 적절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276쪽)

즉 ‘치매’가 이모와 나 사이의 관계를 단절하고 왜곡하는 매개체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관계의 파탄은 이모의 이야기 정체성이 왜곡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긴 세월 자신을 돌봐 온 이모의 삶은 ‘희생’이었다는 생각하고, 그래서 이모의 발병 순간부터 서술자 ‘나’의 자아 정체성은 이모의 희생에 대한 부채감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이것은 그러한 희생을 기꺼이 감수한 이모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고,³⁴⁾ 나아가 죄책감과 두려움이 된다. 치매에 걸린 이모의 기억 속에서 나의 유년 시절이 뚜렷해질수록 이러한 왜곡된 인식은 더 심화된다.³⁵⁾

33) 집을 비운 나를 대신하여 ‘기억’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친구 B가 이모를 대신 돌보아 준다. 이 부분은 『달팽이에게』의 요지 고모가 하지 고모를 돌봐주는 구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34) “내 의지도 이모 자신의 의지도 아니었다. 그때 만약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의식이 있었다면 나는 기꺼이 혼자 사는 삶을 선택했을 것이다.”(『달걀』, 257쪽)와 같이 나는 이모의 희생에 대한 부채감을 넘어서 이모의 희생에 대한 원망의 마음까지 가지고 있다.

35) 김은정, 『엄마도 엄마가 필요하다 - 문학이 만난 치매 이야기』, 브레인와이즈, 2018, 132쪽.

이와 같이 왜곡된 질서는 이모의 이야기 정체성이 온전하게 형성됨으로써 극복된다. 며칠 만에 집에 돌아온 나는 이모의 잠자리를 봐주며 나오려는 순간 이모의 죽음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나는 이모의 진정한 마음을 알게 된다.

안녕히 주무세요. 이모. 정작 하고 싶은 말은 이모가 죽을 때까지 한마디도 못할 것 같았다. 이모가 한 손으로 내 귀를 잡아당겨 이모 입술로 바삭 끌어당기고는 말했다. 난 아직도 잠잘 땐 탁구공이 흑, 튀어올랐다가 내려오는 꿈을 꾸단다. 또렷한 눈으로 이모는 방긋 한 번 웃었다. 나는 그것이 이모의 마지막 말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모, 미안했어요. 이모가 그 말을 듣지 못할까 봐 나는 큰 소리로 말했다. 눈을 감은 채 이모는 또 한 번 살며시 웃었다.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날 나는 고마웠다는 말을 했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그 말을 이모가 더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을까. 이모는 단 한 번도 나에게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혹은 ‘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라는 말 같은 건 한 적이 없었는데 그동안 나는 왜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일까. (277쪽)

이모의 삶은 회한과 원망으로 찬 것이 아니었다. ‘매일 탁구공이 튀어 오르는 꿈을 꿀’만큼 탁구 선수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꿈을 포기하고 ‘나’를 돌봐 온 이모의 삶은 원망의 그것이 아니라 ‘방긋 한 번 웃으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이었음이 마지막 순간에 진실로서 드러난 것이다.

우리는 타자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타자의 삶이 나의 삶을 대체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따라서 배려란 자기와 타자가 서로 대체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나와 마주하고 있는 타자에게 존중으로 응답하는 것이다.³⁶⁾ 이모의 죽음을 통해 서술자 ‘나’는 이모의 일생에 대한 존중의 표현을 이모의 이야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으로 응답하여야 한다.

『달걀』에서 이모의 이야기 정체성은 이모의 치매 증상을 돌보는 과정

36) 폴 리콤프, 김웅권 역, 『타자로서 자기자신』, 동문선, 2006, 234쪽.

에서 형성한 것이 아니라 치매로 인한 이모의 죽음 이후 겪게 되는 이모의 치매 증상과 유사한 혼란과 망각의 고통을 서술자 자신이 느끼고 난 이후에 구성된다. 이모가 죽은 지 한달 후, 나는 혼란과 부재의 감정을 겪게 된다. 냉장고에 음식이 들어 있다는 사실, 내가 방금 밥을 먹었다는 사실, 이모가 죽었다는 뼈아픈 사실 같은 것도 종종 잊어버리곤 하는 것이다. 그 혼란 속에서 헤어졌던 독일의 연인 가비로부터 나를 그린 스케치 한 장이 팩스로 도착한다. 가비의 스케치를 통해 ‘나’는 ‘나는 무엇인가’라는 ‘나’의 정체성에 다가서게 된다. 그리고 나는 ‘가비에게 이모에 대해 말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죽은 이모의 삶을 재구성하는 이야기 정체성의 공동의 저자가 된다.

의자를 도로 식탁에 갖다놓았다. 저녁을 먹고 나면 가끔 이 식탁에서 허리를 구부린 채 이모와 탁구를 치기도 했다. 그런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이모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전부 다 사라져버리는 건 아니었다. 가비에게 아직 하지 못한 말들이 많았다. 가비를 만난다면 불 앞에서 젖은 머리를 말리던 이모, 고작 가자미 앞에서 푹푹 눈물을 흘리던 나의 아름다운, 언제나 자신을 맨 마지막에 놓았던 이모에 대해서 말하게 될지 모른다. 나는 본래의 나에 대해서, 가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 (281쪽)

이렇게 서술자 ‘나’는 이모의 죽음 후, 이모와 함께한 삶의 이야기를 엮으면서 ‘그가 누구인가’라는 인물의 이야기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게 하였다. 이모의 일생 전체에서 공동의 역사를 가진 ‘나’는 이모의 삶 속에서 파편적 조각들로 줄거리를 구성하고 그 줄거리를 통일적으로 구성하여 이모의 이야기를 형성한 것이다. 또한 그 인물의 고착된 성격을 넘어서 진정한 삶에 대한 이상과 지향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인물을 사랑받거나 존경받을 만한 특성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는³⁷⁾ 방식으로, 서술

37) 공병혜, 앞의 논문, 82쪽.

자 ‘나’는 이모를 ‘나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준 존재이며, ‘탁구 선수로서의 자신’을 잊지 않은 존재라는 ‘존경받을 만한 특성’을 가진 사람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이 작품의 제목인 ‘달걀’은 주인공 나에게 고질적인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이다. 나는 달걀을 먹지도 만지지도 못할 만큼 심각한 알레르기 증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달걀 알레르기는 단순한 육체적 병리 현상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얼굴은 내 이모처럼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면 언제나 보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지도 몰랐다. 달걀. 그것은 내가 아주 어렸을 적, 이모가 나에게 준 최초의 음식이었다. 가장 강력하며 가장 침투력이 강한, 가장 근원적인 나의 두려움 말이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어쩌면 나를 지켜나가기 위한 하나의 생존 방법 같은 것은 아니었을까. (282쪽)

끊임없이 ‘나’를 괴롭혀 온 ‘달걀’ 알레르기에 대한 해답은 바로 ‘달걀이 이모가 나에게 준 최초의 음식’이라는 것이다. 이모의 음식에 대한 ‘나’의 반응이 ‘두려움’으로 형성된 것은 이모의 희생에 대한 부채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이모의 죽음의 순간을 통해, 이모가 나에게 준 것은 ‘사랑’이지 갚아야 할 희생의 대가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서술자 ‘나’ 또한 나의 이야기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이것은 이모라는 타자의 이야기 정체성 형성이 ‘치매’로 비롯된 왜곡된 질서를 극복하고, 자아의 자아 정체성 찾기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는 특히 앞서 「내 사랑 클레멘타인」과 유사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3.2. 「달팽이에게」

다음으로 논의할 작품인 「달팽이에게」 역시 유사 가족, 확대된 가족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앞의 작품들과 달리 치매 환자에 대한

‘돌봄’의 의미가 달리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통해 조경란의 치매 서사에서 이야기 정체성이 지니는 함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돌봄’의 의미를 보도록 하자. 서술자 ‘나’는 하지, 요지 고모와 함께 살아가는 젊은 남성이다. ‘나’는 열한 살에 익사체로 발견된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후 ‘죽음’에 대한 심각한 내면적 상처를 지니고 있는 인물이다. 이 점이 그에게 폐쇄된 자아 정체성을 가지게 한다.

이 ‘나’가 다시 목도해야 할 처지에 있는 것은 ‘치매’에 의한 죽음이다. 서술자 ‘나’는 치매에 의한 죽음을 ‘소리없이 천천히 진행되지만 끊임없이 계속되기 때문에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으로 인식한다. 그가 지닌 폐쇄된 자아 정체성으로는 이를 극복할 수 없고, ‘치매’는 그와 하지 고모 간의 대립을 야기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당연히 그는 하지 고모를 돌보지 않는 제3자에 머물고, 그에게 있어서 ‘돌봄’은 앞의 작품에 서와 같이 갈등적 요인이 된다.

그런데 이 작품은 이 ‘돌봄’의 의미가 요지 고모라는 인물을 통해 복합적으로 제시된다. 즉 이 작품에서 요지 고모는 치매 환자인 언니 하지 고모를 ‘존엄성이 존재하는 죽음’으로까지 이끌어주는 긍정적 ‘돌봄’의 모습을 보여 준다.

담담 의사는 그 병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가진 사랑이 그 병을 이기고도 남을 만큼 강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는 엄숙하게 말한 적이 있었다. 한자리에서 같은 말을 들었는데 나는 그 말을 일찍 포기하라는 말로 들었고 요지 고모는 그 병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인간이 가진 사랑뿐이라는 말로 이해한 것 같았다.³⁸⁾ (65쪽)

38) 조경란, 『달팽이에게』, 『풍선을 샀어』, 문학과 지성사, 2008. 이하 이 작품의 인용은 이 책으로 하고, 인용 페이지만 명시한다.

마침내 하지 고모가 밥 먹는 방법마저 잊어버렸다. 이젠 같이 앉아서
 울고 웃고 화내는 것 말고 요지 고모와 나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하지 고모 체중이 급격히 떨어졌다. 요지 고모는 밥을 씹고 물을 삼키는
 방법을 완전히 잊어버린 하지 고모에게 입을 벌려 억지로 삼키게 했다.
 ...(중략) 하지 고모가 잠이 든 때를 제외하고 요지 고모는 하지 고모 앞
 에서 지치지도 않고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과일을 먹었다. 시늉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씹어 삼켰다. (71쪽)

이는 ‘돌봄’이 앞서의 작품들에서 가족 이데올로기라는 구조에서 인간
 관계의 대립을 가져오는 요인이었던 것과는 다른 의미를 지님을 보여
 준다. 서술자 ‘나’에게 있어서 ‘돌봄’의 의미는 앞서 작품들과 동일하다고
 해도, 적어도 요지 고모에게 있어서는 그와 상반된 의미를 지니는 것이
 다.

왜 그런가. ‘돌봄’은 그와 관련된 인물들(특히 치매 환자)의 이야기 정
 체성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할 때 갈등의 부정적 요인이 될 가능성이 커
 진다. 그런데 요지 고모는 어릴 적부터 한 몸처럼 자란 언니 하지 고모
 의 이야기 정체성을 본질적으로 형성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두
 자매가 사실은 ‘치매’라는 이름의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는 작품상 설정
 으로부터 지지될 수 있다.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언니 하지 고모는 노
 년에 이르러 치매에 걸려 있고, 동생인 요지 고모는 어릴 때 한약을 잘
 못 먹어 정신이 박약해진 ‘일종의 치매’를 앓는 상태인 것이다.³⁹⁾ 자매,
 동일한 병증, 정신 박약의 순수 상태 등은 상대방을 타인이 아닌, 자신과
 동일시하는 상황으로 끌어올려 주는 장치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술
 자 ‘나’와 달리 요지 고모는 하지 고모의 이야기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
 다. 즉 하지 언니라는 타자의 ‘무엇’으로 이루어진 삶의 이야기를 이해함
 으으로써 그의 인간적 존엄성도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그의 ‘돌봄’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고, 이는 하지 고모로 하여금 미력하나마 ‘자신의 병에

39) 김은정, 앞의 책, 182쪽.

맞서 싸우기로 결심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이후 하지 고모가 맞게 될 죽음이 '올바른 죽음'으로 '나'에게까지 인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나는 여기에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에 둘러싸인 채 평화롭게 눈을 감고 있는 하지 고모 얼굴을 본다. 지금 방안에는 요지 고모와 하지 고모 사이의, 죽어가는 자와 남아 있는 자 사이의 긴밀한 신뢰감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달팽이들이 큰더듬이 옆의 생식구멍으로 길고 빛나는 음경을 갖다 댔다. 아름다운 죽음, 올바른 죽음, 이라고 나는 중얼거린다. 서로의 몸에 달팽이들이 화살을 쏜다. 안녕히 가시오, 성! 나는 먼데서 들려오는 요지 고모의 목소리를 들었다....(중략) 요지 고모가 곁을 지키고 있는 하지 고모의 모습은 느긋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 모습은 생을 등지게 될 때 그 무거운 짐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바로 회한인 것만은 아니라고 말해 주는 것 같았다. 그것은 내가 처음 본 평화로운 죽음이었고 또한 하지 고모가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다. (79-80쪽)

물론 하지 고모의 죽음을 올바른 죽음으로 완성한 것은 바로 요지 고모의 '돌봄'의 태도이다. 그래서 요지 고모의 '돌봄'은 언니 하지 고모에 대한 '자매애'가 바탕이 되었다고⁴⁰⁾ 해석할 수도 있지만, 보다 본질적인 배경은 이 작품에 특수하게 설정된 타인에 대한 본질적인 공감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치매 간병 서사의 경우 돌봄 과정에서 서술자는 치매에 걸린 인물과의 공감을 통한 배려를 실천한다면⁴¹⁾ 이 '공감'은 그의 이야기 정체성에 대한 공감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요지 고모는 하지 고모의 일생을 함께 하는 공동의 저자로서 언니의 이야기 정체성을 훌륭하게 완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40) 두 고모의 삶과 죽음에 나타난 '자매애'는 생태여성주의의 원리인 '공동체'에 대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인간과 자연이 그리고 모든 존재들이 하나의 큰 몸처럼 상호 연결되어 있고 각 개체에 일어나는 일이 곧 전체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다.(박선애·김정석, 앞의 논문, 799쪽)

41) 엄미옥, 『치매서사에 나타난 이야기 윤리』, 『현대문학이론연구』 76집, 2019, 149쪽.

서술자 ‘나’와 하지 고모의 관계는 앞서 작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내 사랑 클레멘타인』, 『달걀』 등에서 서술자와 치매 환자(아버지, 이모)는 치매, 돌봄의 환경에서 대립적 관계를 형성하고, 이 대립은 돌봄의 대상인 치매 환자의 이야기 정체성을 형성함으로써 해소된다. 『달팽이에게』에서 ‘나’ 역시 요지 고모에 의해 형성된 하지 고모의 이야기 정체성을 이해함으로써 대립 관계를 극복하고 자신의 이야기 정체성 형성으로 나아가게 된다.

즉 평화로운 죽음으로 완성된 하지 고모의 이야기 정체성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부정적 인식에 간혀 있던 서술자 ‘나’의 자아 정체성의 변화 또한 이끈다. 이는 요지 고모라는 매개체를 통해 확장된 것이고, 다시 요지 고모의 죽음을 ‘나’가 지켜보게 됨으로써 ‘나’는 두 고모의 이야기 정체성을 동시에 완성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 고모가 세상을 떠나자 요지 고모는 언니와의 추억이 있는 고향을 다녀온 후 자신의 ‘존엄한’ 죽음을 직접 준비한다. 요지 고모의 이러한 기획은 ‘나’의 죽음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나’는 하지 고모의 ‘평화로운 죽음’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한 ‘죽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전환에서 더 나아가 ‘존엄성이 존재하는 죽음’을 직접 체험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두 고모(특히 요지 고모)의 이야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공동의 저자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내 손을 붙잡고 있는 요지 고모의 젖은 손바닥은 따뜻했다. 그 손바닥 안에 나는 고모들이 내게 주고 가는 집과 과수원이 들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끝으로 요지 고모는 외치듯 내 이름을 크게 한 번 부르곤 눈을 감았다. 하지 고모가 세상을 떠난 지 꼭 한 달 만이었다. 입술을 요지 고모 귀에 가까이 대고 나는 작별 인사 대신 고맙다는 말을 했다. 그것은 진심이었다. 타인의 죽음이었지만 거기서 나는 희망이 있는, 존엄성이 존재하는 죽음을 보았던 것이다. (83쪽)

이와 같이 서술자 ‘나’는 하지 고모, 요지 고모, 자신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완성하고, 그 끝에서 새로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한다. 이 작품에서 ‘달팽이’가 지니는 상징성, 이를테면 두 고모의 관계가 자동동체처럼 ‘한 몸’이라는 상징과 더불어, 두 고모의 죽음의 순간에 교미하고 알을 낳은 장면처럼 새로운 ‘생명력’이라는 상징성은 이러한 서사 구조를 잘 보여 준다.

고모들이 내 손바닥 안에 쥐어주고 간 것. 나는 기적적인 생을 받아
 권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고작 지름이 삼 밀리미터도 안 되는 달팽이
 알 앞에서 비죽비죽 눈물이나 흠치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인 것이다.
 (86쪽)

이와 같이 ‘나’는 고모들이 내 손바닥 안에 쥐여 주고 간 것이 새로운 생명력이라는 것을 알고, 고모들의 이야기 정체성을 완성함과 동시에 ‘나’ 자신의 이야기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이와 같이 확장적인 구조는 요지 고모의 ‘돌봄’의 의미에서 확인된 ‘이야기 정체성’이 인간의 존재적 가치를 이해하는 핵심이라는 주제적 의식이 일관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달걀』, 『달팽이에게』의 두 작품은 치매 환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면서 두 작품에서 ‘돌봄’은 상반된 의미를 보여 준다. 전자가 치매 환자와 돌봄이(이모, 나) 간의 대립적 관계를 기조로 하고 있다면, 후자는 양자 간(하지 고모, 요지 고모)의 화합적 관계를 보여 준다. ‘돌봄’의 의미가 이렇게 다름에도, 두 작품은 공통적으로 타인, 즉 치매 환자의 이야기 정체성 형성을 통해 이모와 ‘나’, 하지 고모와 ‘나’ 사이의 대립, 갈등 관계를 극복하게 된다. 이는 이야기 정체성 형성이 조경란 작품에서 매우 핵심적인 장치로 작동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치매 환자(이모, 하지 고모, 요지 고모)의 ‘이야기’ 끝에 있는 ‘죽음’이 ‘존엄한 죽음’으로 귀결되는 서사 구조 역시 이

점을 확인해 준다고 할 것이다.

4. 나가며

이상에서 본고는 조경란 치매 서사의 ‘돌봄’의 의미를 이야기 정체성의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리콰르는 이야기는 삶의 총체적 연관성 속에서 통일성을 지니며, 사회 속에서 타자와 함께 타자를 위해서 어떻게 자신이 훌륭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 그 삶이 어떠한지 하는 지에 대한 윤리적 지향성을 지닌 각자의 ‘자기’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본고는 리콰르의 이러한 윤리적 논의를 바탕으로 조경란의 치매 서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의 이야기 정체성을 형성해 주는가의 측면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리콰르의 이야기 정체성 형성의 주체가 치매 환자를 돌보는 서술자(돌봄이)인 경우의 작품인 『내 사랑 클레멘타인』, 『밤이 깊었네』에서 서술자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 작품들은 특히 조경란 소설의 지속적인 화두였던 ‘가족 이데올로기’의 구조 속에서 ‘돌봄’의 의미가 고찰되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서술 대상인 치매에 걸린 어머니(『밤이 깊었네』)나 아버지(『내 사랑 클레멘타인』)의 치매 증상보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서술자의 이야기가 중심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가족 이데올로기의 직접적인 피영향자로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실한 돌봄이 서술자가 이야기 정체성 형성을 통해 자아를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서사로 해석될 수 있었다.

『달걀』, 『달팽이에게』는 이야기 정체성 형성 과정의 중심이 치매 환자(돌봄 대상)인 작품들이다. 이 두 작품의 서술자는 남성 조카들로서 가족 이데올로기의 구조와의 관련성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자연스럽게 돌봄이가 아닌 돌봄 대상에 중심이 놓여 있다. 따라서 ‘돌봄’이 지닌 갈등

적 요인이 달리 나타나기도 하는데, 특히 『달팽이에게』는 돌봄이 자매간인 두 고모 사이의 강한 유대를 바탕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이루어진다. 본고는 그 원인을 돌이키면서 한 인물 같은 자매의 특성, 즉 돌봄이가 돌봄 대상의 이야기 정체성을 완벽하게 형성하고 있다는 데서 찾았다. 결국 조경란의 이 작품들 역시 이야기 정체성이 핵심적인 주제 의식인데, 그 점은 ‘죽음’에 대한 진지한 성찰에서도 확인된다. 두 작품 모두 치매 환자의 ‘존엄한 죽음’, ‘평화로운 죽음’을 보여 주는데, 한 인간이 엮어가는 이야기의 완성점이 죽음이라는 점에서 이 역시 이야기 정체성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기본 자료>

- 조경란, 「내 사랑 클레멘타인」, 『불란서 안경원』, 문학동네, 1997
조경란, 「밤이 깊었네」, 「달걀」, 「달팽이에게」, 『풍선을 샀어』, 문학과지성사, 2008.

<논저>

- 강혜경, 「여성주의 윤리시각에서 본 여성의 모성」, 『여성학논집』 25집 2호, 2008, 81~116쪽.
공병혜, 「간호에서의 보살핌에 대한 철학적 탐구-리콕르의 이야기 윤리에 기초하여」, 『대한간호학회지』 제35권 제7호, 대한간호학회, 2005, 1333~1342쪽.
공병혜, 「리콕르의 이야기적 정치성과 생명윤리」, 『철학과 현상학 연구』 24, 한국현상학회, 2005. 61~89쪽.
공병혜, 「몸의 기억과 자기 정체성」, 『현상학과 현대철학』 78, 2018, 149~178쪽
김미영, 「소설에서의 치매 서사의 수용」, 『국어문학』 63, 국어문학회, 2016, 231-255쪽.
김연경, 「박완서 소설의 노년문제 연구」, 충북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김은정, 「모녀서사를 통해 본 치매의 상징성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61집, 2012, 303~327쪽.
김은정, 「박완서 노년소설에 나타난 질병의 의미」, 『한국문학논총』 제70집, 2015, 293~332쪽.
김은정, 「이승우 치매 모티프 소설의 이야기 정체성 고찰 (1)」, 『돈암어

- 문학』 제35집, 2019, 37~67쪽.
- 김은정, 「현대소설에 나타난 치매의 의미」, 『한민족어문학』 제63집, 2013, 313~340쪽.
- 김은정, 『엄마도 엄마가 필요하다 - 문학이 만난 치매 이야기』, 브레인과 이즈, 2018.
- 김한식, 「이야기의 윤리학을 위하여: 폴 리콤프의 해석학을 중심으로」, 『해석학연구』 29, 한국해석학회, 2012, 199~246쪽.
- 남승숙, 「치매서사에서 인간의 존엄성 지키기」, 『현대영미어문학』 제36권, 2018, 21~44쪽.
- 미셸 세르 외 10명, 이효숙 역,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알마, 2013.
- 박산향, 「박완서 소설의 치매 서사와 가족 갈등 고찰」,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9권, 2018, 347~370쪽.
- 박선애 · 김정석, 「문학 텍스트 속의 노년 죽음과 돌봄: 조경란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6, 2016, 785~808쪽.
- 배근혜, 「타하르 벤 젤룬『모래아이』의 정체성-폴 리콤프의 이야기 정체성에 근거하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백지은, 「우아한 궁정의 세계-조경란 소설집, 풍선을 샀어」, 『문학과사회』 21, 2008, 472~476쪽.
- 서영인, 「유폐된 내면의 행로-조경란론」, 『창작과 비평』 31, 2003, 313~327쪽.
- 서정현, 「노년소설에 나타난 죽음 인식 연구」, 『인문사회21』 제9권 2호, 2018, 593~603쪽.
- 서혜지, 「조경란 소설에 나타난 가족의 의미-가족의 기원과 움직임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22, 2006, 37~54쪽.
- 성미라 외, 「재가치매 노인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의 극복경험」, 『대한간호학회지』 제43권 제4호, 한국간호과학회, 2013, 389~398쪽.
- 안지나, 「1970년대 한일노년문학의 ‘치매’ 표상과 젠더」, 『횡단인문학』

제3호, 2019, 47~76쪽.

엄미옥, 「고령화 사회의 문학-‘치매’를 다룬 소설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4권, 2018, 285~321쪽.

엄미옥, 「치매서사에 나타난 이야기 윤리」, 『현대문학이론연구』 76집, 2019, 129~159쪽.

오이 겐, 안상현 역, 『치매 노인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윤출판, 2013.

윤성우, 『폴 리콥르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 2004.

이기연, 「『이인』의 이야기 정체성」, 『불어불문학연구』 98집, 한국불어불문학회, 2014, 129~174쪽.

이반 이스쿠이에르두, 김영선 역, 『망각의 기술』, 푸른숲, 2017.

이정석, 「우울, 불가능한 재현을 꿈꾸는 그 어두운 징조」, 『작가세계』 20, 2008, 77~92쪽.

차혜영, 「가족과 작별하기, 타인과 함께서기 - 조경란 소설집 『풍선을 샀어』」, 『본질과 현상』 14, 2008, 285~291쪽.

최윤영, 「치매소설에 나타난 ‘근대적 개인’의 위기와 서술적 정체성」, 『인문논총』 제75권, 2018, 309~341쪽.

폴 리콥르, 김웅권 역, 『타자로서 자기자신』, 동문선, 2006.

폴 리콥르, 김한식 역, 『시간과 이야기 3』, 문학과 지성사, 2004.

<Abstract>

The Narrative Identity in Cho Kyung-ran's Dementia Narratives

Kim, Eun-Jung*

Based on the ethical discussion of the narrative identity of P. Ricoeur, this paper analyzed the four dementia narratives of Cho Kyung-ran. First of all, we classified them into two parts, those of which the caregivers are at the center of the narrative and those of which dementia patients are at the center of the narrative, and it was argued that the formation of narrative identity is a common thematic concept.

My Love Clementine and It's Deep in the Night are works in which a female narrator(caregiver) who takes care of a dementia patient is the center of the narrative. In particular, the works show the meaning of 'caring' being considered in the structure of 'family ideology', which has been the constant topic of the novels by Cho Kyung-ran. Therefore, the story of a narrator who takes care of a dementia patient rather than a dementia patient or his/her symptom gets the main focus. In this context, these works could be interpreted as the narratives showing how the caregivers, who have lost their value as victims of family ideology, recover themselves through the formation of a narrative identity.

Eggs and To Snails are works in which dementia patients(care

* Kyungnam University.

subjects) are at the center of the formation of narrative identity. The narrators of these two works are nephews, who are relatively less related to the structure of family ideology, so the focus of narrative is on the care subjects. Therefore, the meaning of *caring* is different from that of other works, especially in *To Snails*, it appears as very positive meaning. We think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two persons who are one-person-like sisters, specially, the caregiver forms the narrative identity of the care subject perfectly. In particular, the thematic concept of narrative identity can be confirmed by the fact that both works show the 'grave death' of dementia patients, because death is the perfect point of a human's story. In conclusion, it can be understood that Cho Kyung-ran's dementia narrative presents a narrative identity as the key to restoring human dignity in the conflict structure caused by dementia.

Key Words : dementia, narrative identity, caring, family ideology, death

■ 논문접수 : 2020년 7월 20일
■ 심사완료 : 2020년 8월 18일
■ 게재 확정 : 2020년 8월 24일